



회암사 지공선사탑 및 석등(사진 왼쪽)과 나옹선사탑 및 석등(오른쪽). 고려말로 추정되던 이들의 조성연대가 조선 후기인 19세기라는 주장이 최근 나왔다.



# “회암사터 나옹·지공선사 부도 ‘고려말’ 아닌 ‘조선말’ 조성”

양식 뒤떨어지고 순서 위계 안 맞아 회암사 19세기까지 명맥 이어진듯

경기도 양주 회암사터(사적 128호) 북쪽 능선에 남아 있는 지공(?~1363)선사와 나옹(1320~1376)선사의 부도는 조선 후기인 19세기에 조성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두 선사의 활동시기와 연결시켜 고려시대 조성연대를 추정해오던 것들이었다.

경기도박물관이 회암사 특별전(10월 5일)의 일환으로 7월 29일 개최한 학술강연회에서 ‘회암사지의 석조유물’을 발표한 국립중앙박물관 소재구학예연구관은 “나옹, 지공선사의 승탑(승소의 사리나 유골을 모신 탑, 부도는 두 선사의 입적시기에 맞춰 그 조성시기가 고려시대 말기로

비정되어 있다”며 “양식적인 면에서 이 승탑들의 조성시기는 19세기로 재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 연구관은 먼저 여말선초 회암사의 3대 주역이었던 지공-나옹-무학 스님의 부도 위치를 그 근거로 제시했다. 회암사터 위쪽, 즉 현재의 회암사 동쪽 능선에는 위쪽부터 나옹선사탑 및 석등(경기도유형문화재 50호), 지공선사탑 및 석등(경기도유형문화재 49호), 무학대사탑으로 추정되는 회암사지부도(보물 388호, 1407년 추정)가 자리하고 있는데, 상하의 계보를 중시하는 선전에서 보기 드물게 제자인 나옹선사탑과 스승인 지공선사탑이 위계상 그 위치가 뒤바뀐 것이다. 이는 최초로 무학대사의 부도가 세워지고 나머지 두 스승의 탑은 먼 후대에 나옹, 지공의 순서로 세워지면서 상하의 위계가 흐트러진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이 소 연구관의 설명이다. 나옹선사의 행적을 기록한 선각왕사비(보물 387호, 1381년)가 맞은편 언덕에 떨어져 단독으로 세워진 사실 역시 애당초 이 석비가 세워질 당시에는 부도를 동시에 건립할 계획이 없었음을 짐작케 한다.

양식적인 면에서도, 형식적으로는 무학대사의 탑과 석등으로 추정되는 회암사지부도와 석등을 본뜨고 있지만 거의 장식이 생략되고, 조형감각도 매우 단순화되어 극단적으로 형식화된 특징을 보여준다. 소 연구관은 “이는 순조 28년(1828)에 건진 무학대사비, 지공선사비 등의 치석기법이 그대로 승탑조형에 적용되고 있는 점이나 조선 후기 왕릉의 귀유석(鬼遊石)을 본뜬 상석(床石) 등에서도 확인된다”며 “지공, 나옹선사의 승탑과 그 부속물들은 입적 당시의 제작물이 아니라 훨씬 후대의 조성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소 연구관은 “19세기에도 무학대사비, 지공선사비, 나옹화상탑 및 석등, 지공선사탑 및 석등 등 일련의 석조물들이 대거 조성되었다는 것은 회암사가 명종-선조(1566-1595)대에 완전히 폐사된 것이 아니라 원래의 회암사 터에서 지금의 회암사 쪽으로 자리를 옮겨 소규모나마 명맥을 유지해 왔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권형진 기자 jinry@buddhapia.com



정병모 교수가 쓰는 불교 미술의 美

### 불상(3)

#### 애기부처의 비밀

선덕왕 때 일이다. 도중사(道中寺)의 생의(生義) 스님이 꿈을 꾸었는데, 한 스님이 나타나 그를 데리고 남산에 올라가더니 남쪽 골짜기에 이르러 “내가 이곳에 묻혀 있으니 스님께서 나를 꺼내어 고개 위에 안치하여 주십시오”라고 부탁하였다. 꿈에서 깨어나 그가 표시해 놓은 곳을 찾아가 땅을 파니 과연 돌미륵이 나타났다. 그 미륵상을 삼화평 위에 옮겨 절을 세우고 이름

했지만 애기부처는 중국 북제, 북주시대부터 일본 하쿠호 시대까지 동아시아에서 유행했던 양식이다. 일본 학자들은 이러한 양쪽 골짜기에 이르러 “내가 이곳에 묻혀 있으니 스님께서 나를 꺼내어 고개 위에 안치하여 주십시오”라고 부탁하였다. 꿈에서 깨어나 그가 표시해 놓은 곳을 찾아가 땅을 파니 과연 돌미륵이 나타났다. 그 미륵상을 삼화평 위에 옮겨 절을 세우고 이름

관련단(右肩扁袒)에 오른쪽 엉덩이를 옆으로 내린 포즈가 양중스럽다. 이 바람에 범의 오른쪽 팔자 띠가 살짝 들렸는데, 이것이 이 불상의 매력이다.

도대체 왜 부처님을 엮고 양중스럽게 만든 것일까? 그것은 바로 친근감이다. 부처라는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부드러운 따뜻한 인간미로 대중에게 다가간 것이다. 원호스님이 광대와 같은 복장을 하고 거리낌 없는 행적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한 것도 같은 시기, 같은 맥락의 일이다.

이제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되었지만, 성철스님 하면 떠오르는 ‘삼천 배’에 관한 일화도 이 불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성철 스님을 만나려면 삼천 번 오례부처를 해야만 가능했다. 그런데



삼화평석조삼존불의 보살상(사진 왼쪽)과 금동여래입상(오른쪽). 두 불상 모두 4등신의 어린아이 몸매로 ‘애기부처’라는 애칭으로 불린다.

### 1미터 남짓 4등신-순진무구·옛된 표정 부드럽고 따뜻한 인간미로 대중 앞에

을 생의(生義)스님이라 하였다. 충담스님이 해마다 3월3일과 9월9일에 차를 달여 공양하던 것이 이 부처라고 한다. 이상이 <삼국유사>에 전하는 설화다. 이 설화에 나오는 불상이 현재 국립경주박물관에 모셔진 삼화평석조미륵삼존불상으로 추정된다.

경주사람들은 이 삼존불상 가운데 양쪽의 보살상들을 ‘애기부처’라고 부른다. 이 보살상들은 1m 남짓한 4등신의 몸매에 순진무구하고 옛된 표정을 짓고 있다. 영락없이 네 살배기 어린이 모습이다. 이 애기부처는 7세기 신라시대에 제작된 것이다. 그

여기에도 예외가 있다. 바로 어린아이들이 해마다 3월3일과 9월9일에 차를 달여 공양하던 것이 이 부처라고 한다. 이상이 <삼국유사>에 전하는 설화다. 이 설화에 나오는 불상이 현재 국립경주박물관에 모셔진 삼화평석조미륵삼존불상으로 추정된다.

그렇다. 어린아이는 곧 부처이다. 너무나 간단한 진리이지만, 허망하게 높은 것만을 쳐다보는 중생들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은 차원의 것이다. 삼천 배를 하여 자기 자신을 어린아이처럼 한껏 낮추어야만 비로소 볼 수 있는 그러한 세계이다.

■경주대 문화재학부

### 전국 232개 시군구 향토문화 DB화 복장유물 등 불교문화 집대성 전망

정문연, 내년부터 ‘문화전자대전’ 편찬

전국 방방곡곡의 불교 관계 자료들이 집대성된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정신대)이 전국 232개 시·군·구의 향토문화 자료들을 집대성하는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편찬 사업을 내년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한국향토...’는 지방의 향토문화자료를 발굴·수집·연구하여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무료로 서비스하는 일종의 ‘인터넷 백과사전’이다. 2013년까지 1천2백여 명의 정부예산과 연인원 2만여 명의 전문학자가 투입된다.

대략 58만 항목에 20여만 장의 사진이 △자연과 지리 △지방역사 △문화유산 △성씨와 인물 △정치와 행정 △경제와 산업 △종교와 문화 △생활민속 △구비전승 등 9개 분류체계로 정리된다. 단순히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목

록 정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범패처럼 무형문화재는 동영상과 만들어 서비스하고, 질마다 발견되는 복장유물의 경우 조성기 등 발견유물에 대한 내용 연구까지 함께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덕분에 지방의 불교문화가 집대성되는 계기도 될 것으로 보인다. 94년부터 이 사업을 준비해온 전산정보실 이종철 실장(정문연 한국학대학원 교수)은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대부분이 불교와 관련된 것들인 만큼 문화유산뿐 아니라 생활민속, 성씨나 인물, 종교와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 불교가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된다”며 “불교문화를 비판적으로 계승하고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는 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불교계 전문 인력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20~22일 日서 한일종교연구포럼

일제침략기 일본불교에 대한 반성 등 발표



한국과 일본의 종교학자 20여 명이 모여 큰 대가 양국의 불교가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모색해 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20~22일 일본 교토(京都) 오타니(大谷)대학에서 ‘동아시아의 종교성과 네트워크’를 주제로 열리는 제2회 한일종교연구포럼(공동대표 정진홍·사진, 시마즈노 스무미)이다.

포럼의 핵심이라 할 제1분과 ‘한일의 근대문화와 불교’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기존 시각과 ‘약간의 거리 두기’를 시도한다. 일본 불교의 한국 진출을 일제의 대륙 침략과 연결시켜온 우리 학계에서는 일본 불교가 식민지 지배를 통해 한국 불교에 ‘비람직하지 못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보는 것이 대체적 시각이다. 하지만 그러한 ‘가치’ 개념을 배제하고 동아시아 종교문화라는 보다 큰 맥락에서 순수한 개념의 종교 교류 현상을 분석해 보자는 것이 이번 포럼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선 이병욱(고려대 강사)·김광룡(박사보조사상연구원 선임연구원) 등이 주제 발표에 나선다.

대신 일제 침략기 일본 불교에 대한 반성과 성찰은 일본측 발표자가 맡는다. 오타니 대학 연구생인 미군인 미카 아백(Micah Auerback)은 “한국 불교를 접한 일본인 승려들은 한국 승려에게 감화를 받아 한국 불교를 높이 평가했으며 한국 불교를 통해 선종의 순수한 전통을 배우게 된다”는 주장을 펼 예정이다.

### 지장 제일기도량 도솔천 내원궁 도솔암

# 1029일 천도제

도솔암은 최근 극락보전을 중창 낙성하고 아미타부처님을 개금해드리는 한편 후불탱화를 새로 모셨습니다. 이 뜻깊은 불사 회향을 선망부모·유주·무주 고훨와 함께 하고자 1029일 동안 49재를 21번 지내는 대규모 천도제를 올리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동참 불자께서는 천도제사를 매주 올리게 되며 기도회향때까지 총 147회의 제사

를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천년을 지켜온 마애불(보물 제1200호)과 지장보살(보물 제280호)이 보살피시는 도솔암에서 다시 천년을 이어갈 가람으로 중창하고 열리는 ‘1029일 천도제’에 많은 불자들께서 동참하시어 뜻하신바 소망을 성취하고 모든 영가의 극락왕생과 성불의 인연을 맺으시길 기원합니다.

#### 첫 번째 49재 안내

제 1재 6월 29일	제 2재 7월 6일	제 3재 7월 13일
제 4재 7월 20일	제 5재 7월 27일	제 6재 8월 3일

첫 번째 49재 - 8월10일 용주사 주지 정락근스님 영가법문

- ▶ 매주 토요일 오후 10시 : 철야 지장기도
-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 천도제사 (영가천도 법회 총 147회)

#### ■ 교동안내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조계사암 출발 / ● 매주 일요일 오전 6시30분 조계사암 출발

도솔암 전화 063)561-0075 / 팩스 063)561-4080

서울 017-221-8778(이회장) 02)821-3242,4689(진여회)

부산 011-855-8741(부산고속관광 박길하), 016-842-4272(유정희) 대 전 011-409-2702(동선관광 이현호)

조계종제24교구본사  
선운사

도솔암 주지 지정 합장



도솔암 지장보살(보물 제280호)